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② 번째]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② 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①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학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
고 했는데 특히 고전문학에서 그런 현상은 더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불쌍한 친구들은 문학자습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면서 나
가는 친구들... 시대별로, 장르별로 정리... 또 정리... 무작적 정리...

예를 들면

구지가 = 어찌고 저찌고....

정읍사 = 이리 저리....

황조가 = 어이쿠 저이쿠....

공무도하가 = 훌랄라라 훌라라

등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꼼꼼하고 색깔펜까지 그어가면서 4편 정리하
면서 스스로 대견해 하고 가슴 뿌듯한 아이들 보면 그냥 화가 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1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저 4편 작품들을

한 시간 넘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부류의 제공자들에게 화가 나

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학 때문에 괴롭고 고통 받는 여러분은 문학공부에 있어 **무**
죄입니다. 문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배우
지 못했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제대
로 가르치지 않았으면서... 제대로 가
르치지 못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법도 모르면
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이것은 끝내야 한다... 이것은 외워야 한다.. 이
것은 기본이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특강 들어라.. 누구 인강 들
어라..... 문학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 것이고.... 왜 외워야 하는 것인
지 ? 왜 이해하면 안되는 건지..... 왜 배우지 못하고 누구 특강, 누
구 인강에 매달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부족
한 자신만을 도닥이며 상처를 쓰다듬는 여러분을 보면..... 그냥 슬픔
니다. 또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끔 방관하고 방조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큰 소리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문학의 상위개념이 뭐라 그랬지 ? 기억
나지 ?

= (단체로) 네, 선생님 !! 시문학의 상위개념은 서정문학이라고 했습니다.

= (군대식으로) 그럼 서정문학은 뭐라 했나 ?

= 바로 대상에 대한 정서... 즉 시적화자의 느낌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 만약, 너희가 시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주어진 대상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라면...그 분들을 생각하며 시를 쓴다면... 너희 시에는 반드시 어떤 정서가
들어가겠나 ? 철수 말해봐 !!

= (철수) 음.... 음.... 음.....

= 어떤 느낌과 감정이 너희 시에 나타나겠냐고 말이다.... (큰 소리로 으박지
르며..)

= (철수) 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 죄송해요. 아니... 잘 모
르겠어요...

===== 여기서 우리는 철수의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에 안타까워 할
수도 있으며 어우 저런 TTL(떨떨이) 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는 솔직히 무죄입니다. 잠시 시간을 한 시간 뒤로 돌
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서정문학이 뭔지, 정서가 뭔지를 배운 철수에게 다시
물습니다. =====

= 만약, 너희가 시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주어진 대상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라면...그 분들을 생각하며 시를 쓴다면... 너희 시에는 반드시 어떤 정서가
들어가겠나 ? 철수 말해봐 !!

= 냅, 선생님 ...아마도 제 시에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그
리고 그리움과 슬픔이 나타날 거 같습니다.

- =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정서가 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 = (철수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들에도 대상에 대한 그런 정서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
- = 당연히 노출되어 있지...!! 그게 없으면 서정문학이 아니고 당연히 문학의 개념에 들어올 수 없으며.... 더 당근...수능에는 출제될 수도 없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는 시험에 원칙 아닌 편법으로 인재를 뽑을 수야 없지.... 당연히 서정문학인 시문학은 정서가 노출되어 있지.... 알겠어 !!!
- = 그러면 선생님 !! 제 친구가 쓴 글인데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 니 친구가 누군데... 네 김건모라고 하는데 초코두부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죠... 한번 봐 주세요... 제목도 아주 웃깁니다.

===== 철수의 친구의 시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 = 눈물은 시적화자의 태도이다. 태도는 곧 정서라 봐도 된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느낌 때문에 나오는 2차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눈물은 곧 대상인 너, 그대와 이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이라는 정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슬픔이라는 정서 때문에 촉발된 태도이다...

힘 없이 돌아서던 너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 = 정서는 없어보이지만 숨겨져 있다.. 그 숨겨진 정서를 찾을 수 있을 때 문학 감상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힘없이 돌아서는 뒷 모습...너희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느낌 ? 당연히 슬퍼 보이겠지 ? 다음 가사를 보자...

나 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 = 나는 너로 인해 슬프다는 최초의 정서가 노출되는 순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 시적화자의 태도.....즉 의지가 보인다.... (슬픔을 견디려고 노력하는 태도)

= 극복 의지가 바로 이런 거란다...애들아...

그 짧았던 만남도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젠 눈물로 지워야 할 상처 뿐인데

= 대상인 너, 그대 때문에 계속 슬프고 눈물난다... (정서와 태도)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 둘 거야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 하니까

= 슬픔 (정서), 마음내 남기겠다... (태도)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 가지만

한동안 난 가끔 울 것만 같아

= 너가 잊혀져가는 현실은 나에게는 아주 싫은 상황, 슬픈 상황, 부정적 상황....

이하 생략...

= 대상은 너, 그대이고 시적상황은 이별상황....

= 당연히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괴로움...

= 시적태도는 잊혀지는 너를 끝까지 잊지 않으려는 의지적 자세...

= 끝이야... 시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1분이면 분석 끝이야...

= 이런 시는 천 년 전에도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원시시대도 있었고 앞으로 백년, 이만년 후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서정문학으로 공부해야 돼....

= (철수가) 선생님 그럼 시적화자의 정서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결국 시적화자의 태도를 통해 역으로 정서를 유추할 수 있겠군요.... 아.... 이제 알 거 같아요....

= 너 예쁜 여학생이 너에게 커피 사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어때 ?

= 아주 좋죠...!! 기분 짱이죠...!! 당장 가서 은행을 털어서라도 사주죠... 당근!!

= 그럼 개그맨 오나미가 사달라고 하면 ?

= 못들은 척 할겁니다.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거나 어떤 핑계를 대서 화를 낼 겁니다.

= 봤지 ? 시적화자의 태도는 바로 대상에 대한 정서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은행을 털어 커피를 사는 행위와 화를 내는 행위는 바로 정서에서 오는 것이란다.... 이해되지 ?



당연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 (시적태도,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 김건모의 노래 가사를 가지고도 해봤습니다.

요즘 노래는 아는 게 없어서...이해해주세요. 오늘 이 글쓰다가 김건모 노래 들리기에 이것으로 해봤으니깐요....

아마도 대중가요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는 도구로는 가장 유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테스트하기에는 상징성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수능용은 아니죠... 그러면 수능용 지문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 대부분 시적화자의 태도를 통해 정서를 유추할 수 있는 상징성이 농후하고 짙은 작품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이제 시를 보는 안목을 조금 넓혔으니 고전 시가로 넘어가 봅시다....

===== 우리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고전시가를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서정문학의 개념을 알고 있고, 익혀왔고, 수능이 그렇게 출제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뿐인데.....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조선 가사문학 8대 작품(이것은 원문과 해석본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것임= 따로 정리해서 공부할 필요 전혀 없음.... 대신 원문으로 읽어낼 수 있는 고등교육 필수 작품임....)도 다 끝내놓고 자신 있어 했는데 갑자기 해석이 어렵고 안 될 것만 같은 지문이 나타난 상황... 이것이 2015년 A형 고전시가라고 칩시다.....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물론 이과는 문과보다 다소 쉽습니다. 더러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문과와 이과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문과는 더 많은 문학 작품을 공부해야 하고 한 두달 정도 걸려서라도 고전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구요.... 또 화가 납니다. 저도 국어 가르침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은 말.... 학생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있는 머리조차 없는 듯한 말..... 오로지... 수능 수험생을 임용고시생으로 착각하고 가르치기 보다는 지시하려고만 하는 듯한 말....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임용 고시생도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문과 고전문학은 차차 하게 될 것이니 이과와 문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정문학에 대한 해석의 깊이와 대상의 세세함, 태도의 정밀성, 표현의 깊이...등등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말보다는 나중에 설명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죠 ?..... =====



자 봅시다. 2015년 기출입니다.

자 크게 외치고 들어갑시다.

= 시를 만나면 뭘 찾는다 ?

= 냅, 선생님 시를 만나면 바로 대상을 찾습니다.

= 그리고 뭘 또 찾는다 ?

= 냅,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찾습니다.

= 다른 거 공부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

= 아닙니다.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난생 처음 보는 시일 뿐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로 대상과 정서, 태도 찾으면 수능 출제자가 가장 좋아한다고 배웠습니다.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게서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1행 =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서가 먼저 나옵니다. (서러움)...해석 되는 대로 해 보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일이 남들에게는 서러울까 ?..... 이해되지요 ?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죠 ? 시적화자의 대상은 뭔지 모릅니다만 정서는 현재 서러움이 듭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머물러봐야 시간 낭비이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행 = 임과 그리워....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솔직히 이 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문학배운 센스있는 친구는 회심의 미소와 1교시의 힘찬 손가락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로 대상은 [임]입니다. 그리고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3행 = 양대... 해석 안됨...빨리 지나감... 해석하려 하지마... 그게 대상은 아니니까... 구름비가 내리네 마네....하는 것을 보니 양대는 어떤 장소인 거 같습니다. (경포대같은 누각임...)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4행 = 깨진 거울도 아니고 반쪽 거울...당연 이게 뭐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대상은 님 이고 정서는 그리움이니까 서로 이별할 때 쪼갠 거울정도라는 것은 알아야 함... 그렇지 않니?... 그것도 모르겠다면 지나가도 상관없어... 앞에서 엄청 큰 대어를 낚았으니까...ㅋㅋㅋ

5행 = 하여튼 해석 안되는 것들이 안오고 그쳤대....

6행 = 역시 대상은 님이야... 소식도 못듣고 모습도 보이지 않잖아... 결국 뭐야? .. 그리움이 잦아... 이렇게 읽으면 될 걸 ... 선생님 고전시가 어떻게 해요... 마닿을 공부하면 되나요? 어떤 누구의 나비나비 만만세효과음을 공부하면 되나요?... 누구 누구의 상위권 문학을 보면 되나요? 그런 아이들이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 정서)

㉠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위 아니 그리워할쏘냐

7행 = 화조월석 = 몰라 = 빨리 가라고 = 울며 (태도) = 그리워 (전쟁 아니야=바로 정서야)

8행 = 그리워가 정서인데 하도 그리워서 그리워하지 말자라고 다짐(의지적 태도= 약가는 반어적이지? 지 입으로 그리워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계속 그리워하니까?...)

9행 = 자기 각오지? 그리워 하지 말자고 다짐한다잖아...

10행 = 잇으려 했지만 눈에 밝혀서 잇지 못하는데... 그게 서럽대... 보고 싶지만 못 보니까... 잇으려 하는데 자꾸 생각나니까 어찌 안 그리워할 수 있겠냐..... 하면서 탄식함.... 결국 뭐야? 역시 대상은 님이고 그리움이야....

===== 대상은 님이고 정서는 그리움 외에 다른 거 있나요? 그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장치, 즉 수사법 정도 쓰인 거 외에 특별히 배경지식이 필요한 거 있나요? 특별히 공부해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 있던가요? 지금까지 배경지식, 해설서 참조하면서 이 작품 외우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㉔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잊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 11행 = 또 그리워... 아 지겹다... = 지도 지겨웠는지 하루가 삼년 같다네요...
- 12행 =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니까 원수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 리움이니까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표현....반어적 표현입니다.
- 13행 = 뭘 뜻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 해석 안되면 빨리 지나갑니다.
- 14행 =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있는 곳이 궁금한가 봅니다. 그 사람 있는 곳을 알고자 하고 진초라는 곳이라도 가겠다라는 (태도..태도..태도가 나왔음...) 강한 의지적 태도가 보입니다. 해석 안되지만 중요한 것 같음...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냐

- 15행 = 생각없고 쉽게 잊는 법을 배우고 싶답니다. 왠지 앞줄에 나온 사람과 연관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그냥 이정도만 해석하고 갑니다. 선불리 나서지말고...
- 16행 = 어리석은 건 자기 자신이고 자기는 재주도 없다. 그러나 님을 향한 총명은 약해야 하겠니? 강해야 하겠니?...문맥상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마친 정도면 내 부족하지만 님을 향한 총명만큼은 사광(누군지는 몰라도 총명의 대명사같아...)보다는 더 뛰어나다... 이정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거 안되면 선생님도 힘들어....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㉕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 17행 = 그런 내 총명이 나날이 병이 들어가... (님과 떨어진지 오래...)
- 18행 = 그리움 때문에 밥도 ...잠도... 병이 들어감
- 19행 = 수척해(일종의 태도?), 얼굴 까맣게? (일종의 태도?) = 병이 들어감
- 20행 = 고 3 출신이라면 최소한 약인거는 안다... 그 약이 효험 없단다... 병이 깊다는 얘기지

고황(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냐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㉔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21행 = 고향은 해석은 안되는데.... 필독 작품인 관동별곡에서 본 것이니까 이정도는 해석이 되어야 함.... 고질병이라는 뜻이야 ... 편작은 알고 있고... 아무리 명의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즉 내병은 = 그리움인데 = 명의도 못 고쳐.....

22행 = 처음 만날 때부터 어느 누가 우리 나중에 헤어질겁니다...라고 말하겠니 ? 어떤 미친 년놈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이리 이별할 줄 몰랐겠지... 그래 안 그래 ?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23행 = (비익조?) 뭘 소린지 몰라도 부부가 되어.... (연리지?) 뭘 소린지 몰라도 수풀 아래..
24행 = 집 짓고 열매 먹어?... 하아...님과 내가 부부되어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25행 = 살아있는 동안은 이별 안하리라 생각했는데.... 원했는데..
26행 = 서로 떨어져 살며 그리워...(정서)... 다 늙었다...

=====
여기까지 여러분... 주된 대상은 님이죠 ? 정서는 그리
움이죠 ? 이별을 원하지 않았죠 ? ... 뭐 특별히 배경지식
이 필요한 거 있나요 ? 특별히 공부해서 이해
해야 하는 내용 있던가요 ? 지금까지 배
경지식, 해설서 참조하면서 이 작품
외우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㉔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27행 = 예로부터 견우직녀를 이르는 말이 있나봅니다.

28행 = 그 남녀는 참으로 불쌍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29행 = 그래도 그 남녀는 불쌍해도 일년에 한번은 서로 만나고 보는데.... 뭐 나올지 대강 감
잡힌다... 그렇지? ...그것이 오천년 이상 내려온 한국인의 정서야... 정서야... 정
서야...

30행 = 애달프다... = 슬프다... = 우리는 그마저도 못하는 신세다.... = 슬프다....

여러분.... 박인로에 대해서 알아야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나요?

상사곡이 뭔지 꼭 알고 있어야... EBS 분석 노트 꼭 품에 안고서 외워야
이 지문 해석이 될까요? 빠른 시간에 서정문학이 뭔지 알고 있으니
까 대상 찾고 정서 찾고 태도 찾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려 하는지 감이 오나요? 한번 문제도 봅시다....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학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만 설명하라고 합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럼 문제 잘 못 낸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말로 훌륭하신 너무나도 훌륭해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강강사들과 그들을 흉내내는 아류 강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님은 임금이며, 화자는 신하이다. 박인로는 어찌고 저찌고(거의

죽마고우같은 표현으로 그를 너무 잘 설명함)... 충신연주지사의 주제로...
 이때 충신연주지사 작품 4-5개를 설명함...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곧 나올 특별 인강에 포함되어 있다함...
 그리고 그 수업을 들은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갈래: 가사(충신연주지사)
- 성격: 애상적, 대조적, 비유적, 감각적
- 특징
 - ① 군신관계를 남녀관계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형상화
 - ② 사랑하는 임(여성)과 이별한 장부(丈夫-남성화자)가 화자로 등장
 남성 화자는 임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지만 임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임은 지상계에 존재하는 여성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 구체적 정보는 없다.
 - ③ 다양한 비유와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한 정서 표현
- 주제: 변함없는 연군의 정(연군지정)

잠시 또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편 칼럼에서 문학 문제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 설명을 담당한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그들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OX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 OX문제 나오면 반드
 시 끊어 읽으라고 했죠.... 전문가들은 복합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그럴
 수록 끊어읽으면 됩니다.자 갑니다.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① 자문 자답의 방식으로....///// 여기서 끊고 OX를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부분이니까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석의 내용을 보면 여러군데 보이지만 바로 1행과 2
 행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O)입니다. ///// 임에 대한 그리움ㅋㅋㅋㅋㅋㅋ ... 게임 끝입
 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①번입니다.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풍자의 기법 /////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과 고발입니다. 여기서 님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X)입니다. 혹시나 해서 뒤를 보아도 대상 님은 맞아도 정서는 (서운함?=이게 말이 돼? = 서러움이지... 혹시 서러움과 서운함을 구별못해 ?= 오마이갓!!!!!!!)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언어유희를 통해 ///// 말장난 표현, 님과의 이별과 외로움을 표현하는데...무슨 말 장난 할 것도 아니고 또 판소리처럼 시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무슨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시장에서 공연할 때 재밌으라고 판소리 같은 곳에서 나온단다...그럼 (X)다. 혹시나 뒤를 보니 이별을 수용하는 담담함?= 말이 돼? = 님을 향한 그리움.... 오케이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의태어를 나열 ///// 애들아... (X)다...
임에 의한 외로움 (오케이이다.).... 수척한 얼굴...까만 얼굴... 거울에 녹이 슬었다.. 정도 어차피 뒤에 건 보는 게 아니다. 앞에서 (X)이면 뒤에 거 보는 순간 시간 낭비된다.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 /////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중해설에는 없다고 나옵니다...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 ?.....ㅋㅋㅋㅋ == 빨리 가자....

===== 지금까지 배경지식으로 또 특정 정보를 외워서 풀었습니까 ? 여러분 시문학에 대해 이해가 됩니까 ? 슬슬 자신감이 생깁니까 ? =====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동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는 우리의 이해에 대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전문가나

동료들이 하는 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이게 수능 출제 원칙이고 출제자의 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결국 이 문제도 (OX) 문제입니다.

이해문제 = 이해/감상 문제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 ~를 이해하라...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는 ㉠~ ㉡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끊어 읽기 전에 무조건 목적어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살짝 맞는지 틀리는지만 가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판단할 때 (OX)가 나옵니다.

=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라.... /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 항상 끊어 읽으세요....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① ㉠은 화조월석입니다. 대략 뜻풀이 해봤는데 이해되시죠? 저 정도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고 틀리고 판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시어를 통해.....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O)입니다. /// 그 다음을 보면 님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 ~~~ 맞나요? 틀리나요?...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좋은 때를 같이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 맞죠?.... ①은 맞습니다.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 시어의 대비를 통해 /// 여기까지 본문에 나와있죠... (O)입니다. 그 뒤 부분을 보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여기서 정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잘 못 배운 무죄자입니다. 국어 선생님한테 서정이 무엇인지 정서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다면 선생님들이 유죄자입니다.) ②도 맞죠?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③ ~~ 시어를 통해 /// 여기까지 본문에 나와있죠... (O)입니다. 그 뒤 부분을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 맞네요....

④ ㉔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시어를 통해 //// 여기까지 본문에 나와있죠... (O)입니다. 그 뒤 부분을 보면 님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아무리 시를 몰라도 해석이 다 된 위 시에서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말이 됩니까 ?..... 이별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 바로 이게 답이네요....

⑤ ㉔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⑤ ~~ 시어를 통해 //// 여기까지 본문에 나와있고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죠 ?... (O)입니다.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슬픔이죠.... 맞네요.....

===== 지금까지 위 시에 대해 특별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었습니까 ? 고전문학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나요 ?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았길래 아침에 일어나 우는 새처럼 ...고전 문학....고전 문학....합니까 ?=====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또 이해 문제입니다.

= 앞문제보다 보기 박스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더 소모되겠죠?

= 그래서 능력 있는 친구라면 같은 시간대로 풀어내면 능력점수 3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3점 짜리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강의하는 국어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정말 국어를 모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항상 보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에는 어려운 3점짜리 문제만 모은 교재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1등급을 향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강의....ㅋㅋㅋㅋ 아는 사람은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3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물론 여기서 어렵다는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함... 수학도 마찬가지...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다양하게 얽혀져서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야 함...그래야 숨겨진 조건이 뭔지 알려고 노력하게 됨)

= 자 다시 이해문제에 대해 얘기 안할게요... 위 문제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 윗글을 이해한 것..... 이해 앞에 윗글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 각 선지 주어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윗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보 기>—

- ㉠ 청조: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 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 사택망치: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
- ㉢ 사광: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 편작: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 비익조: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① ~를 활용한 것은 //// 당연히 ㉠인 청조는 본문에 나옵니다. - 여기서 빨리 가자고요. ~~~과 같이 ///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O)입니다. 진짜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봅시다.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어졌다... 맞나요? 틀리나요?이해해 보니까 맞죠?

② ㉡를 활용한 것은, '사택망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② ~를 활용한 것은 //// 당연히 ㉡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부럽다...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을 잊기 어렵다.... 이것도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③ ㉠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입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전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③ ~를 활용한 것은 //// 당연히 ㉠도 본문에 나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이보다 더 뛰어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에 대한 기억을 떨칠 수가 없다는 말... 맞습니다.

④ ㉡를 활용한 것은,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④ ~를 활용한 것은 //// 당연히 ㉡도 본문에 나옵니다. 고치기 힘든 병...입에 대한 고질병... 맞습니다.

⑤ ㉢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입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⑤ ~를 활용한 것은 //// 당연히 ㉢도 본문에 나옵니다. 이 글의 대상은 남이고 정서는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입니다. 어째서 재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이별과 슬픔과 그리움을 공부했는데... 이거 틀리면 되겠습니까?

=====

문학 B형은 좀 더 세밀하고 분석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문과니까 더 많은 배경지식, 더 많은 고전공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정말로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고 3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출제자 분들은 여러분의 엄청난 사고력, 발상능력, 추론 능력, 표현 능력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질을 알게 되면 엄청난 실망으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출제합니다.

고 3 수준의 애들아...

우리는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미장원

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사가 되는 사람.... 선생님이 되는 사람 등....참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것을 알고 있단다.... 국어 선생님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죽는 그날까지 독서를 하게 된단다.... 시도 읽을 것이고 소설도 읽을 것이고 너희가 좋아하는 현대, 고전 문학 모두를 접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구운몽을 만화로도 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 이런 것을 요구했단다.... 문학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회적 역군들을 길러내 달라고 그래야 그들의 각자 직업에서 지치고 힘들 때 다양한 문학적 위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말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어진 시간에 고등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독서적 능력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으로 이 사회,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굳게 믿는단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상상한 내용입니다. 100% 주관입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그 진실어린 의도를 어떤 인강 강사는 ‘미친 평가원’, ‘평가원의 장례식’, 수준 낮은 ‘평가원’....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그 분의 수업에 대해 학생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문학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서정 문학과 서사 문학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 분을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능력자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

